

고창사회복지관, 어르신 위한 '반찬마실' 진행

대산면희망나누리 김정숙위원 후원으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대원스님)이 홀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는 '반찬마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르면 지역 내 홀로어르신과 위원 15명이 대산면 마실카페에서 음식공동체 '반찬마실'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반찬마실'은 대산면희망나누리 김정숙 위원의 후원으로 공간을 마련해 매월 1회 평소 어르신이 드시고 싶은 음식을 여쭙고 다음 모임에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든다.

이 시간을 통해 음식을 함께 만들며 한 달 이야기를 나누는 등 어르신 간 관계를 맺어주는 기회도 되고 있다.

김정숙 위원은 "지난 반찬마실에서

두부조림을 만들었는데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을 보고 뿌듯했다"라며 "둘째 시간을 보내며 어르신들과 가까워지는 기회도 되어 좋다"고 말했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대원스님은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라며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기회가 더욱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고 있어 따뜻한 고창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발해지



대산면 마실카페에서 음식공동체 '반찬마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산면희망나누리위원회의 특회사업인 반찬마실은 고창군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민관협력활성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아산면, 대산면에 이어 올해는 부안면과 심원면이 참여해 지역공동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금암2동,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역량 강화 교육

금암2동(동장 김세원)에서는 25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26개 동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희망일리미' 발굴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심각성을 일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발굴단의 역할과 임무를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발굴단의 꼼꼼한 조사를 통해 위기 가정에 공적 부조 및 통합사회관리와 긴급지원 등 민·관 협력 예방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암2동 김세원 동장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동네의 시민을 잘 알고 있는 발굴단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단 한명의 시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지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덕진구,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 운영

덕진구(구청장 정태현) 생활복지과는 지난 24일 팔복동, 조촌동, 동신동에 거주하는 100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시작인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을 기동했다.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은 '더 시민 속으로 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덕진구 15개 주민센터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센터를 순회 상당하게 된다.

상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과 법률, 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도 갖는다.

송제우 생활복지과장은 "정보접근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복지 이동상담실을 운영,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는 올리고 복지 사각지대는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덕진경찰서, 소방서와 합동 소방안전훈련

전주덕진경찰서(서장 박성구)는 25일 경찰 자체 방호부대와 팔복 119안전센터 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 내 화재발생을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경찰서 1층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화재상황 전파, 인명대피, 소화기·소화전을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 중요물품 반출 등급조치훈련 등이 이뤄졌다.

또한 휴대용소화기의 기본적인 제작과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휴대용 소화기 사용방법을 직접 실습하는 것으로 훈련은 마무리됐다.

박성구 덕진경찰서장은 "이번 훈련으로 화재발생 시 자체 방호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화재신고 접수 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초기화재 진압능력을 갖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 주계피출소 죄수체 소장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회장실에서 여성이 흥기에 찔려 숨지는 "문지마 살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용터미널, 균린공원 등 공중화장실 주변 수시 점검으로 가시적인 특별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여성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회장실 주변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하고 있다.

한편 죄수체 소장은 "군내 주민센터와 균린공원과 균린시설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정장치, 조도, 물레카페라 등 여성 범죄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과 협업 구축으로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범죄예방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전주 대자인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지난 24일 전주 대자인병원(원장 이병관)과 지역 네트워크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보건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응급환자 전원 시 진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하고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경수=고판호 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건강한 여름나기 밀반찬 전달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언자)은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정성껏 준비한 밀반찬을 독거어르신, 장애인, 폐지수거어르신 등 관내 어려운 이웃 150세대에 전달하는 밀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시원한 물김치와 영양밥점 멸치볶음을 준비해 전달했으며 거동 불편세대 집 인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활동도 병행 실시됐다.

해바라기봉사단 조언자 회장은 "한뼘짝 앞으로 다가온 더운 여름 잊어버린 입맛을 찾을 수 있도록 정성껏 밀반찬을 준비했다"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통해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밀반찬 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동산동 나도지 봉사단 발대식

46명 통장 참여… 매월 반찬 나눔 등 활동

동산동(동장 정용환) 통장협의회(회장 이은기)는 25일 통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도지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나도지 자원봉사단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주민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지역리더로서 관내 46명의 통장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매월 일제 대청소와 반찬 나눔, 농촌일손돕기, 복지도우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은기 회장은 "나도지 자원봉사단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눔문화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동산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나도지 자원봉사단의 솔선수범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우아2동, 나도지 자원봉사단 발대식 · 농촌일손돕기 봉사

우아2동(동장 이병권) 나도지 자원봉사단(단장 박현미) 회원 35명은 25일 관내 산정동 원산정마을 농가에서 나도지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나도지 봉사단원들은 봉사단 선서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디양한 봉사활동 계획으로 따뜻한 동네복지 실현을 다짐했다.

박현미 우아2동 나도지 자원봉사단장은 "봉사단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봉사단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적극 등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신동,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서신동(동장 안규태) 주민센터에서는 25일 2016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90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보람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아연도로, 취약지, 공한지, 공원, 버스승강장 주변 등의 환경경비에 참여해 쓰레기를 줍는 등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서신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서신동 안규태 동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우리 동네 환경 퍼수공 역할과 깨끗하고 체계적인 서신동 이미지를 높여 달라"면서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화2동, 노인일자리사업 안전 사고예방교육

평화2동(동장 심규문)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는 25일 올해 1·2단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6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평화2동은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6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공한지 등 취약지 쓰레기 청소와 제조작업, 벽보 제거 등 도심환경 정비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